

“피해복구도 못했는데...또 태풍” 망연자실

‘링링’ 이어 ‘타파’ 직격탄에 전남 농민들 “복구 의지마저 잃어” 수확기 앞두고 한숨...과수농가도 낙과 피해 “농사 포기할 판”

이달 초 광주·전남에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온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의 피해 복구가 한창인 상황에서, 또 다시 제17호 태풍 ‘타파’(TAPAH)가 광주·전남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쏟아내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이 망연자실 하고 있다.

22일 광주와 전남은, 기상청 등에 따르면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중형급 제17호 태풍 ‘타파’가 우리나라를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비를 뿌렸다. 특히 여수에는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1시간 동안 37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2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최대 순간 풍속은 여수 간여암이 41.7%를 기록했고, 광주에서도 36.4%의 강한 바람이 관측됐다.

그동안 태풍 ‘링링’ 피해 복구에 집중해 온 농민들은 타파가 몰고 온 비바람에 직격탄을 맞았다.

태풍 링링으로 6683ha의 면적에 벼쓰러짐(도복)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은 그동안 1754ha의 면적의 벼 세우기 작업(복구율 27%)을 겨우 마무리 했으나, 또 다시 태풍이 덮치면서 사실상 복구 의지를 상실한 상황이다.

전남의 한 농민은 “일단 비가 쓰러지면 생산량의 10%가 감소하고 벼를 세우는 작업을 하면서 낱알이 떨어져 또 다시 10% 정도가 감소한다”면서 “도복 피해를 입은 벼는 빨리 세우기 작업을 해야 하는데, 농촌인력 대부분이 고령화돼 일일이 손으로 벼를 세워 묶는 작업을 하지 못한다”고

다시 태풍이 덮쳐 복구 의지마저 없었다”고 울먹였다.

농민들 사이에선 수확철 벼 피해도 문제지만, 긴 가을 장마에다 잇따른 태풍 등으로 8~9월 사이 마무리해야 할 마늘과 보리 등 월동작물의 파종시기가 늦춰지면서 수확량 감소 등 큰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수 농가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나주의 한 배 과수 농민은 “태풍 링링 피해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 태풍이 와 그나마 남은 배와 일까지 추가로 떨어졌다”면서 “이런 태풍 패턴이 계속된다면 과수 농사 자체를 포기해야 할 듯 싶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함께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5시 기준 광주시와 전남도에 접수된 피해 현황은 광주 30건, 전남 57건 등 총 87건으로 집계됐다. A(55)씨는 이날 오

전 10시 50분께 목포시 석현동 한 교회 외벽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후 2시 50분께엔 ‘곡성 심정 배 배드민턴 축제’가 열린 곡성군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통유리가 파손돼 성인 4명이 다쳤으며,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새벽 3시 20분께에는 여수시 봉산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넘어져 차량 통행이 지체됐다.

광주에선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전신주를 덮치는 바람에 3시간 정도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태풍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치안 불안 하남부영아파트 CCTV 추가 설치키로

‘소년 납치 미수 의심 사건’(광주일보 2019년 6월 7일자 6면)이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광주시 광산구 하남부영아파트에 CC-TV가 설치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하남부영아파트에서 ‘제10회 현장 경정의 날’을 열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CC-TV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이병호 광산경찰서장, 부영주택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남부영아파트는 준공 27년여 만에 지난 노후 임대아파트 6개동에 820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CC-TV는 단 4대 뿐이다. 이날 주민들은 놀이터, 주민 센터, 엘리베이터 등에 CC-TV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립식 창고 폭삭 제17호 태풍 ‘타파’(TAPAH)가 강한 비바람을 몰고 복상한 22일 여수시 오림동의 한 조립식 창고가 바람을 못 이긴채 무너져 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산단 업체 스위치 오작동 화학공장 일부 가동 중단

지난 21일 오후 3시 40분께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화학공장에서 오일 스위치 오작동으로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장 측은 곧바로 가동을 중단하고 수습에 나섰다. 가동이 중단되면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제품 생산도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소방차 진입 어려운 곳, 광주·전남 23곳

비상 소화장치 설치율도 저조다.

광주와 전남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8곳(2.4km), 전남 15곳(4.8km)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 중 7곳은 주거지역이었으며, 전남은 11곳이 농어촌·산간·도서 지역이었다.

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지역은 1011개소로 총 길이만 457km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구간에 대비한 비상 소화장치의 설치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 1011개소 중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지역은 단 609개소로 설치율이 60.2%에 불과한 상황이다. 비상 소화장치 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경남(25%), 부산(33.9%), 강원(40%)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62.5%, 전남은 60.0%의 설치율을 보였다.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전통시장의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의 경우는 2019년 6월 기준 전국 138개소였으며, 광주는 1곳이 포함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대광역고·서진여고 통학로 부지 반환소송 업체 승소

학생들 등·하교 차질 우려

광주대광역고등학교와 서진여고 등학교의 통학로 부지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측은 이번 판결로 학생과 교직원들의 통행로가 가로막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유한회사 A종합개발이 흥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흥복학원에 대해 A종합개발측에 대광역고의 벽돌 담장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인계하고, 대광역고와 서진여고 학생의 통학로로 사용중인 토지도 인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 흥복학원은 토지 이용에 따라 2017년 3월1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매월 49만5675원을 A종합개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A종합개발은 흥복학원 산하에 있는 대광역고와 서

진여고 앞에 있는 광주시 남구 주월동 옛 서진병원 부지를 2016년 11월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 A종합개발은 낙찰받은 부지 중 일부를 대광역고 연와벽돌담장이 침범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통신주 등의 시설을 설치와 함께 대광역고와 서진여고 통학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해당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흥복학원 측은 “통학로 부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형태로 조성돼 흥복학원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통학로를 반환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통행로마저 막히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벽돌담장이 A종합개발이 낙찰받은 부지에 설치돼 있는 만큼 흥복학원은 담장을 철거하고 침범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장 예비후보 ‘출마 반대 성명’ 구의원 2심 벌금형

광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출마 반대 성명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정 청와대에서 근무한 점,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가 반복한 점 등을 들어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모 구의회 김모(55·여)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진복모인 회원 2명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판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용섭 후보가 광주시장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주민 66명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명서에는 이 후보가 일자리 부위원장을 소임한 바가 없다는 점,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점,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가 반복한 점 등을 들어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용섭 후보의 출마 의사가 공식화되지 않아 서명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와 진복모인 회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출한 사람뿐 아니라 신분이나 연령 등에 비춰 후보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예비 후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씨 등의 행위를 낙선 운동으로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돼지 축사 불...2100마리 폐사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전북 정읍시 용동면 돼지 축사에서 불이나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축사 6동이 소실되고 돼지

2100마리가 폐사해 2억5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불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음=박기성 기자 parkks@

여성 캐디들에게 ‘나쁜 손’ 댄 골프장 이사들 ‘망신살’

○...골프장 이사들이 여성 골프 경기진행요원(캐디)들에게 ‘나쁜 손’을 댔다가 망신살.

○...2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에 따르면 캐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골프장 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또 다른 이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했다는 것.

○...A씨는 지난 2017년 골프 경기 중 캐디 C씨의 허리를 강제로 감싸 안거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은밀한 부위에 닿게 하는 등 추행했고, 또 다른 이사 B씨는 2013년 캐디 D씨와 저녁을 먹은 뒤 모텔에 들어가자고 재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골프장 이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 최고 단지 등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강진군 도암면 계리리 땅 4021㎡ 빌라·대형 중급집 적합 은행 2억 매도·교환 5억천
-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 휴양림 부근 31976㎡ 전원주택단지 등 적합 5억5천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점 땅 48900㎡ 펜션 14개와 수영장 토지 2천여평은 요양병원·시설 적합 휴게소·무인텔 적합 교환가능 3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흥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양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은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단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시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은 8억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양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상가건물

- 유동 신축커뮤니티 단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델빌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 경남 하동군 화계면 법원리 청정지역 땅 1372㎡ 건평 269㎡ 펜션·민박 등 적합 신고 7억5천 경관 최고 은행 2억7천 칠불사까지 3km 4억6천
- 서구 지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특급물건

- 곡성군 목사동면 계획관리지역 등 답과 임 234044㎡ 다양도 사용가능 10억6200
- 강진군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1억5천
- 남원시 지리산 백사골점 펜션 땅 2399㎡ 시설 완벽 투자까지 양호 16억
- 영광 영산면 바닷가 땅 2466㎡ 펜션 2층 은행 등 2억 급매 3억6천
- 오양시 열령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중추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공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융복합인사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립니다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의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77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날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안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통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양 222-9054	·충 장 222-8171	
남구	·남 부 652-0175	·백 은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9-1500	·광 산 944-0444	